트레이드 렌즈
TRADE LENS

투자에 초점을 맞추다.

MACRO INSIGHT / No.11

2026년 3분기 속보 · 소비·설비·재고 · 성장의 지속성

미국 GDP 3.4% 성장의 이면

투자 주도 경제성장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성장 기여도·민간 수요·생산성·투자 회수로 읽는 확장의 조건

3.4%	4.9%	12.7%
3분기 실질 GDP · 연율 [1]	민간 국내 최종수요 · 연율 [1]	기업 고정투자 · 연율 [2]

투자는 성장의 힘이다.
다음 성장은 재고보다 수요와 생산성에 달렸다.

재고의 반등과 자본 형성을 분리하고, 소비·수입·생산성이 다음 분기의 성장을 지탱할 조건을 분석한다.

분석 기준일 2026.11.07

TRADELENS.KR

거시경제·성장구조·자본형성 분석

01 / RESEARCH VIEW

강한 투자, 그러나 같은 성장률의 반복은 별개다

핵심 질문: 재고 반등을 넘어 설비투자가 반복 수요와 생산성으로 이어지는가?

핵심 결론

기본 판단은 확장의 지속이다. 민간 국내 최종수요 4.9%와 기업 고정투자 12.7%의 증가는 실수요와 자본 형성의 기반을 보여준다. 다만 3.4% 성장률에는 재고 반등도 들어 있다. 다음 분기는 투자 증가율 자체보다 소비의 구매력, 가동 성과와 투자 회수의 개선으로 평가해야 한다. [1] [2]

관측	분석적 의미	다음 판단의 기준
소비 +2.5%p 기업 고정투자 +1.8%p	성장은 설비투자 하나가 아니라 소비와 자본 형성이 함께 지지한다.	실질 소비·신규 수요가 투자 이후에도 유지되는가
재고 +1.6%p 순수출 −3.3%p	큰 양·음의 기여가 겹쳐 총성장률만으로 동력을 읽기 어렵다.	재고와 수입이 함께 정상화되는 방향
노동생산성 +3.6% 9월 실질소득 −0.3%	공급 측 효율 개선과 가계의 단기 구매력 부담이 공존한다.	효율 개선이 비용·소득·최종수요로 확산되는가

기여도는 2026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p, 생산성은 전기 대비 연율, 실질소득은 9월 실질 가처분소득의 전월비다. [2] [3] [4]

지지하는 증거

민간 최종수요의 강세, 설비·지식재산 투자, 노동시간보다 빠른 산출 증가가 확장의 근거다.

경계해야 할 증거

실질 소비 정체와 소득 감소가 지속되거나, 판매보다 재고가 빠르게 쌓이면 같은 투자 규모도 수익성을 낮출 수 있다.

독자에게 남길 기준: 성장률의 높이보다 투자 → 가동 → 판매 → 현금 회수 → 재투자의 연결이 유지되는지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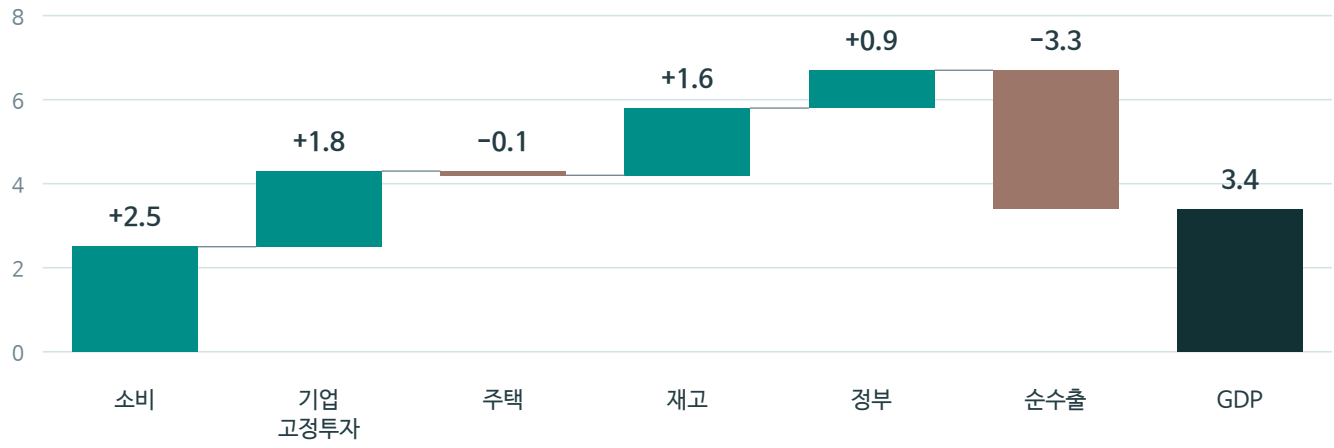
02 / GROWTH ACCOUNTING

3.4%는 소비·투자와 무역의 상쇄 결과다

2026년 3분기 속보치. 기여도와 각 항목의 증가율을 구분한다.

실질 GDP 성장 기여도

%p · 전기 대비 연율



구성	3분기 기여	지속성을 읽는 방식
민간 최종수요	+4.2%p	소비 + 기업 고정투자 + 주택. 재고와 정부는 제외한다.
재고·정부	+2.5%p	이번 성장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같은 기여가 매 분기 반복되지는 않는다.
순수출	−3.3%p	수입을 통해 충족한 수요를 국내 생산에서 구분한다.

출처: 미국 재무부가 BEA 속보치를 재제시한 표 1. 소수 첫째 자리 반올림 값. +2.5 +1.8 −0.1 +1.6 +0.9 −3.3 = 3.4. [2]

민간 국내 최종수요의 **증가율 4.9%**와 GDP에 대한 **기여도 4.2%p**는 다른 지표다. 전자는 소비·고정투자 묶음의 성장 속도이고, 후자는 전체 GDP 증가에 보탠 크기다. [1] [2]

TradeLens 판단

수요는 강하지만 국내 생산의 성장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투자와 수입을 별개의 호재·악재로만 판단하면 같은 설비 구매를 두 번 해석하게 된다.

03 / WHAT ACCELERATED

성장 가속의 큰 부분은 재고 기여의 반전이다

2분기 2.2% → 3분기 3.4%. 구성 변화와 구조적 성장력을 나눠 본다.

실질 성장 기여도	2분기	3분기	변화
소비	+2.5	+2.5	0.0
기업 고정투자	+1.3	+1.8	+0.5
주택	+0.1	−0.1	−0.2
민간 재고	−0.5	+1.6	+2.1
정부	−0.0	+0.9	+0.9
순수출	−1.1	−3.3	−2.2

단위: %p. 반올림된 공식 요약표를 사용하므로 변화 합계 +1.1%p와 공표 GDP 가속 폭 +1.2%p 사이에 반올림 차이가 있다. 잔차를 임의로 특정 항목에 배분하지 않았다. [2]

기업 고정투자는 실제로 더 강해졌다. 그러나 성장 가속 전체를 장기 설비투자 호황으로 설명하면 재고의 +2.1%p 반전과 무역의 −2.2%p 변화를 놓친다. 이 두 항목의 다음 방향이 단기 성장률을 크게 흔들 수 있다. [2]

재고의 반복 조건

재고 증가가 유상 판매로 이어지면 생산을 유지할 수 있다. 판매가 따라오지 못하면 다음 분기 주문·생산 조정으로 전환된다.

정부 기여의 해석

BEA는 SPR 원유 판매 감소가 정부 소비 증가에 반영됐다고 설명한다. 다른 GDP 항목과 상쇄되므로 SPR 처리 자체가 GDP를 직접 늘린 것은 아니다. [1]

TradeLens 판단

제목의 '투자 주도'를 고정투자와 재고투자가 섞인 결과로 읽는다. 지속성에 더 중요한 것은 재고의 한 번 반등보다 최종수요와 기업 고정투자의 결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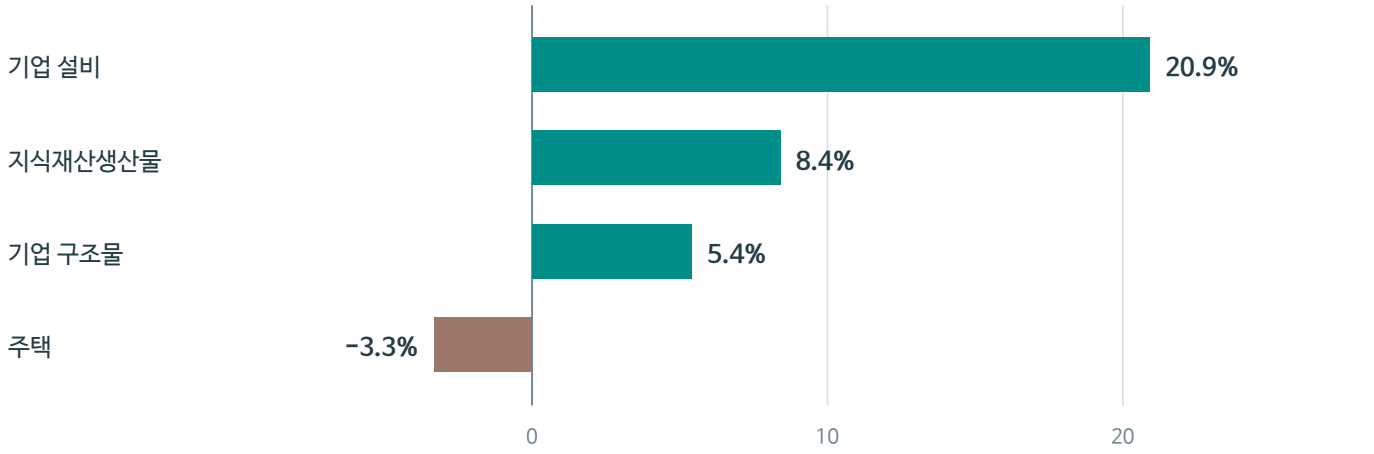
04 / INVESTMENT MIX

설비투자는 강하지만 주택까지 같은 호황은 아니다

기업 투자와 주택을 구분하고, AI를 전체 투자 증가의 유일한 원인으로 두지 않는다.

실질 투자 항목의 증가율

% · 전기 대비 연율



투자의 형태	경제적 역할	수익으로 이어지는 조건
설비·컴퓨터	단기 출하와 생산능력 확충	전력·부지·설치·고객 수요의 동시 확보
소프트웨어·R&D	업무 효율과 새 상품의 기반	도입률·품질·반복 사용과 유상 수요
구조물·주택	장기 자본 형성과 건설 수요	가동·입주 시점, 금융비용과 최종 수요

각 항목은 별도 실질 증가율이며 합산하지 않는다. 기업 고정투자 전체는 12.7% 증가했다. [2]

산업용 설비투자도 연율 **24.7%** 늘었다. 정보처리 장비가 중요한 동력이지만 투자 확대를 AI 장비에만 한정할 수 없다. 반대로 주택투자는 3.3% 감소해 금리 민감 업종의 부담을 보여준다. [1] [2]

TradeLens 판단

투자 확대는 생산능력의 선택적 재배치에 가깝다. 시장 전체에 동일한 호황을 적용하기보다 어떤 자산이 어떤 유상 수요를 확보하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05 / INVENTORY CYCLE

재고가 늘어도 성장 기여는 사라질 수 있다

재고 잔액, 재고투자, 재고의 성장 기여는 서로 다른 단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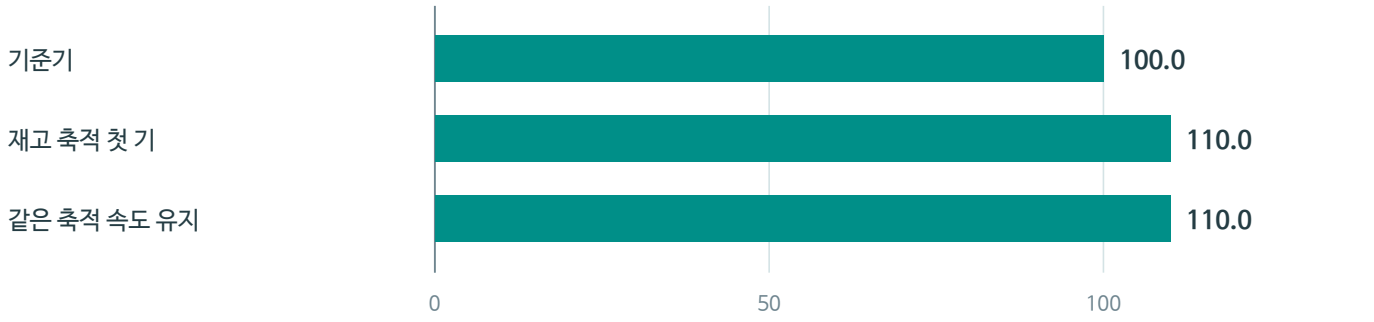
BEA는 이번 재고투자 증가를 도매업과 제조업, 특히 비내구재 산업에서 설명한다. 따라서 재고 기여를 모두 데이터센터 장비 비축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 [1]

설명용 동일가격 모형	기준기	다음 기	그다음 기
최종 판매	100	100	100
재고투자(생산 − 판매)	0	10	10
국내 생산	100	110	110
생산 증가율	—	+10.0%	0.0%

임의 단위·국내 생산만 있는 단순 모형. 실제 미국 GDP·재고 수준·연율 전망이 아니다. 실제 국민계정은 가격조정과 연쇄지수 산식을 사용한다. [9] [10]

같은 판매량에서 달라지는 생산

설명용 생산량



그다음 기에도 재고 잔액은 더 늘지만 생산은 전기와 같다. 판매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재고투자가 10에서 0으로 내려오면 생산은 110에서 100으로 감소한다. 재고가 절대적으로 줄어야만 성장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TradeLens 판단

지속성을 가르는 것은 재고 자체의 크기보다 판매에 맞는 축적 속도다. 판매·출하가 뒷받침되지 않는 재고 확대는 성장의 선행 신호보다 다음 조정의 원인이 될 수 있다.

06 / IMPORTS & DOMESTIC VALUE

수입 설비는 현재 GDP보다 미래 생산능력을 키울 수 있다

설비 구매액 전체와 미국 안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를 구분한다.

동일한 프로젝트의 가정	지출·생산의 기록	미국 GDP에 남는 금액
해외 서버 70 + 국내 설치·건설 30	총투자 +100 / 수입 차감 −70	+30
서버 도입 이후 미국 내 유상 서비스	매출이 아니라 중간투입을 뺀 국내 부가가치	가동·판매 이후 별도 발생

설명용 금액. 수입 서버가 설치·판매 가능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기타 효과는 없다고 가정한다. 향후 서비스의 생산성·수익률을 추정하지 않는다. [9]

9월 명목 상품 수입에서 자본재는 전월보다 **116억 달러** 증가했다. 컴퓨터 +76억 달러, 부속품 +57억 달러와 달리 반도체는 12억 달러 감소했다. 일부 세부항목이므로 세 항목의 합계를 자본재 전체와 일치시키지 않는다. [7]

현재 분기의 GDP

해외에서 생산된 장비는 투자에 포함됐다가 수입 항목에서 차감된다. 총 CAPEX가 국내 부가가치로 같은 비율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9]

다음 분기의 생산능력

설치 완료·전력 확보·가동률·유상 수요가 갖춰지면 장비가 국내 서비스 생산을 지원한다. 수입의 장기 효과는 이용 성과가 결정한다.

11월 4일 무역통계는 GDP 속보 발표 뒤 나온 자료다. 9월 무역적자의 전월 축소만으로 3분기 실질 순수출 기여가 이미 개선됐다고 단정하지 않고, 11월 25일 GDP 수정치를 별도로 본다. [1] [7] [12]

TradeLens 판단

투자의 국내 성장 효과와 해외 공급자의 매출 기회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한국 공급기업에는 미국 GDP보다 자본재 발주·제품별 수입·계약 이행이 더 직접적인 지표다.

07 / HOUSEHOLD DEMAND

분기 소비는 강했지만 9월의 구매력은 약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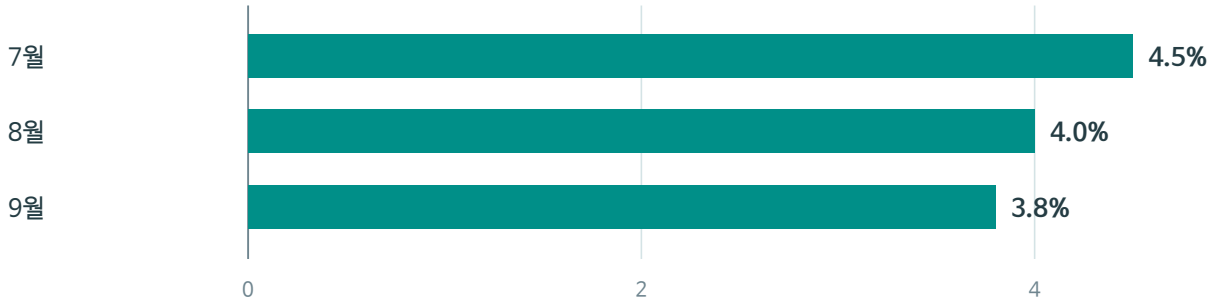
분기 연율과 한 달의 전월비를 혼합하지 않는다.

소비·소득 지표	8월	9월
명목 가처분소득 · 전월비	+0.3%	+0.2%
실질 가처분소득 · 전월비	0.0%	−0.3%
명목 소비지출 · 전월비	+0.9%	+0.5%
실질 소비지출 · 전월비	+0.5%	0.0%

9월 실질 소비는 정밀값으로 0.1% 미만 증가, 공표표의 소수 첫째 자리에서는 0.0%. 3분기 실질 소비는 전기 대비 연율 3.8% 증가했다. [2] [3]

개인저축률

가처분소득 대비 %



저축률은 7월 4.5%에서 9월 3.8%로 낮아졌다. 소득보다 소비가 빠르게 늘 수 있는 완충은 있지만, 이 흐름을 영구적인 소비 확대의 원천으로 볼 수는 없다. 한 달 정체만으로 침체를 단정할 근거도 부족하다. [3] [14]

> **TradeLens 판단**
>
> 소비는 이번 성장의 가장 큰 기여자다. 투자 호황이 지속되려면 가계가 가격 상승을 넘어 실제 구매량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 실질소득·저축률·소비를 묶어서 판단한다.

08 / PRODUCTIVITY TEST

생산성 개선은 긍정적이다. 확산 범위가 다음 질문이다

노동생산성 증가를 AI의 단독 인과효과로 해석하지 않는다.

2026년 3분기	비농업 기업	제조업
노동생산성 · 전기 대비 연율	+3.6%	+0.3%
단위노동비용 · 전기 대비 연율	−0.7%	+2.7%
노동생산성 · 전년 동기비	+2.1%	+0.4%

서로 다른 부문·산출 개념의 비교다. 두 부문의 수치를 더하거나 제조업을 단순 잔차로 해석하지 않는다. BLS 11/5 잠정 발표 기준. [4]

비농업 기업 산출은 연율 3.7%, 노동시간은 0.1% 증가했다. 시간당 보수는 2.9% 늘었지만 생산성 증가가 더 커 단위노동비용은 감소했다. 이는 비용 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긍정적 신호다. [4]

자본이 효율을 높이는 경로

근로자 1시간당 자본이 늘거나 업무·기술·인력 구성이 개선되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효율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 [11]

확산을 검증하는 경로

제조업·서비스의 가동과 단위비용, 실질소득과 판매를 함께 본다. 한 분기의 산출/시간 비율만으로 투자수익률이나 장기 잠재성장을 확정하지 않는다.

9월 산업설비 가동률은 **76.9%**, 장기평균보다 **2.5%p 낮았다**. 특정 분야의 병목과 산업 전체의 여유 설비가 함께 존재할 수 있어, 투자량보다 설비의 위치와 활용도가 중요하다. [8]

> **TradeLens 판단**
>
> 생산성은 확장 지속의 상방 근거다. 다만 산업 전반의 효율과 실질 구매력으로 확산될 때 재투자를 정당화하는 힘이 더 커진다.

09 / CAPITAL RECOVERY

GDP에 잡힌 투자와 투자자가 회수할 현금은 다르다

설명용 투자경제성 모형. 기업 가치평가나 실제 AI 사업 수익률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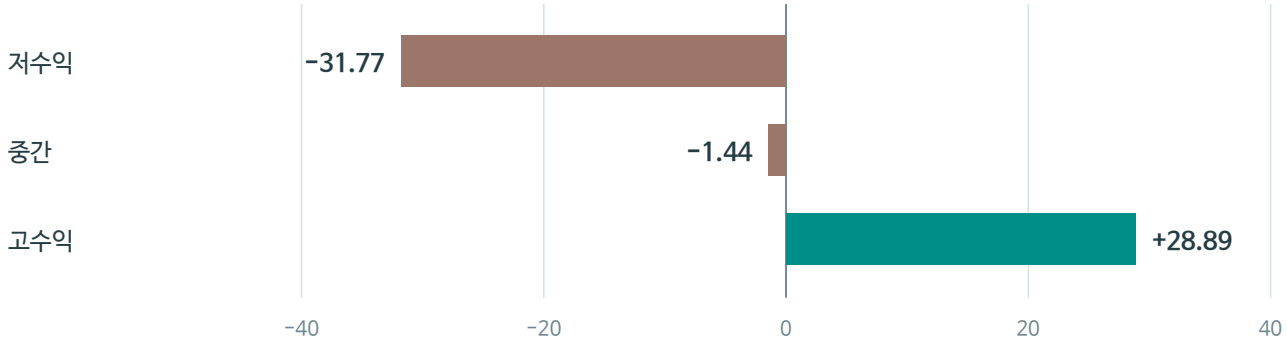
설비 건설·설치 때 발생하는 국내 생산은 현재 GDP에 반영될 수 있다. 사업자가 투입자본을 회수하는 시점은 고객의 유상 이용·운영비·유지투자에 달려 있다. 자산을 많이 구축했다는 사실만으로 다음 투자 재원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9]

초기 투자 100, 5년 운용	저수익	중간	고수익
연간 세후 영업현금 · 가정	20	28	36
연간 유지투자 · 가정	2	2	2
연간 순현금	18	26	34
10% 할인 NPV	−31.77	−1.44	+28.89

단위: 임의 금액. t=0 투자 100, t=1~5 동일 순현금, 잔존가치·운전자본 변동 0. NPV = −100 + 순현금 × Σ (1.10)^(−t). 이자는 현금에서 별도로 차감하지 않는다.

같은 자본지출, 다른 현재가치

설명용 NPV



이 조건에서 NPV가 0이 되려면 연간 순현금은 **26.38**, 유지투자 전 세후 영업현금은 **28.38**이 필요하다. 중간 사례의 현금 유입이 1년 늦어지면 NPV는 **−10.40**으로 더 낮아진다.

TradeLens 판단

지속 가능한 투자 사이클의 조건은 지출 확대가 아니라 비용 차감 후 현금의 재생산이다. 준공·가동 지연은 오늘의 투자액을 바꾸지 않고도 미래 재투자 여력을 약화시킨다.

10 / PRICES & FINANCING

성장과 생산성이 강해도 금융비용은 별도 제약이다

동일한 물가지수도 비교 기간에 따라 다른 정보를 준다.

지표와 기간	관측	판단에 주는 정보
3분기 PCE 물가 · 전기 대비 연율	2.1%	분기 평균 가격의 증가 속도
9월 PCE 물가 · 전년 동월비	3.6%	1년간 누적 가격 압력
9월 근원 PCE · 전년 동월비	3.1%	식품·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흐름
10/28 연방기금 목표범위	3.75~4.00%	정책금리. 개별 프로젝트의 조달금리는 아님

자료: BEA 10/29 발표와 FOMC 10/28 성명. 서로 다른 기간의 물가 수치를 상승·하락 모순으로 보지 않는다. [1] [3] [6]

연준은 강한 성장·투자·생산성을 평가하면서도 물가가 높다고 판단했다. 금리 동결은 다음 인하의 보증이 아니며, 정책금리가 같아도 신용스프레드·만기·담보·계약 조건이 달라지면 사업별 투자 허들은 달라진다. [6]

생산성이 만드는 여지

단위 생산비 절감이 가격 안정과 실질소득으로 이어지면, 공급능력을 높이는 투자와 수요의 선순환이 가능하다.

투자가 만드는 비용

전력·토지·설비·노동의 단기 수요가 먼저 늘면 공급능력 완성 전에 비용 압력이 커질 수 있다. 가동 지연은 할인된 회수액도 줄인다.

TradeLens 판단

기본 전망은 금리 하락에 의존하지 않는 투자 지속이다. 현금과 확정 수요가 있는 사업자는 투자할 수 있지만, 낮은 금리·낙관적인 잔존가치에 기대는 사업은 더 취약하다.

11 / WHO CAPTURES THE GROWTH

성장 효과는 구매자·공급자·가계에 다르게 남는다

GDP 증가를 기업 이익이나 한국 수출기업의 이익률로 바로 변환하지 않는다.

주체	먼저 나타나는 효과	남는 이익을 가르는 조건
미국 설비 구매자	투자지출·자산 증가, 초기 현금 유출	유상 가동률·운영비·교체주기·자본 회수
미국 내 시공·장비 공급자	건설·설치·납품 매출과 고용	수주가격·원가·납기·미수금 회수
해외 장비·부품 공급자	미국 자본재 수입에 대응하는 매출 기회	제품별 경쟁력·현지 생산·계약·결제 조건
근로자·가계	임금·고용과 소비 수요	물가를 뺀 구매력, 효율 개선의 소득 배분

한국 반도체·전력기기·산업설비 공급망에는 투자 수요의 지속이 기회다. 그러나 미국의 총 CAPEX·GDP만으로 특정 기업의 수주나 마진을 추정할 수 없다. 9월에도 컴퓨터 수입은 늘고 반도체 수입은 줄어 세부 품목의 방향이 달랐다. [7]

매출로 읽을 지표

확정 발주, 공급 지역·품목, 납기와 검수, 수주잔고의 인도 전환을 본다. 투자 발표액만으로 출하를 계산하지 않는다.

현금으로 읽을 지표

선수금·재고·매출채권·설비투자를 함께 본다. 공급 확대가 운전자본에 묶이면 매출 증가와 현금 증가의 시점이 달라진다.

TradeLens 판단

투자 사이클의 수혜는 균등하지 않다. 희소한 제품·집행 가능한 계약·회수 능력을 가진 공급자가 매출 기회를 반복 이익으로 바꾸기 쉽다. 이는 분석 기준이며 개별 기업 수혜의 확정은 아니다.

12 / GROWTH SENSITIVITY

재고 정상화만으로 다음 성장률을 예측할 수 없다

공표 기여도를 이용한 산술 실험. 다음 분기 예측이나 확률 시나리오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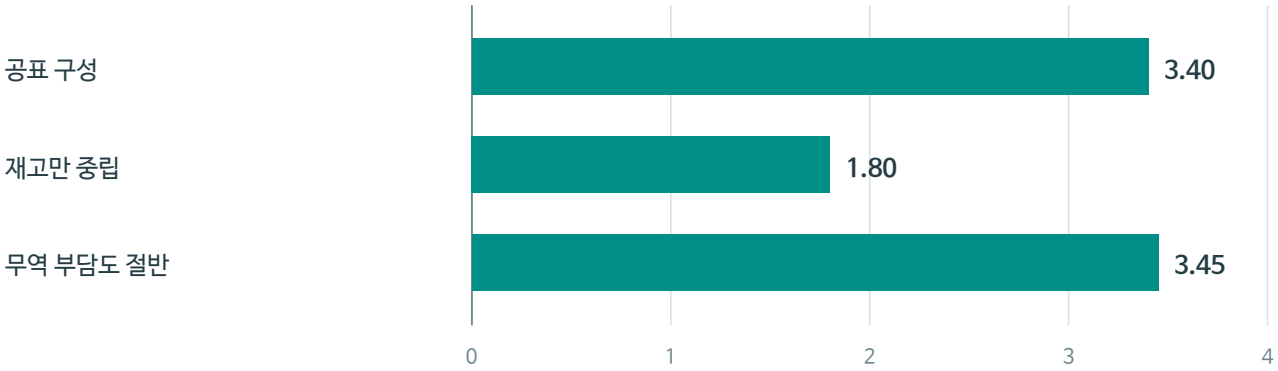
고정·변경한 기여도	공표 구성	재고 중립	무역 부담도 완화
소비·고정투자·주택·정부	+5.1	+5.1	+5.1
재고	+1.6	0.0	0.0
순수출	−3.3	−3.3	−1.65
산술 합계	3.4	1.8	3.45

단위: %p, 합계는 설명용 성장률 %. 5.1 = 2.5 +1.8 −0.1 +0.9. 마지막 열의 순수출은 임의로 부담이 절반이 된 경우다. 실제 전망이 아니다. 기준 기여도 [2], 산식은 TradeLens 계산.

재고 기여만 0으로 놓으면 합계는 1.8이 된다. 그러나 재고 축적을 위해 수입한 물량도 정상화되면 순수출 부담이 줄 수 있다. 반대로 무역 개선이 국내 수요 위축에서 발생했다면 다른 기여도도 함께 약해질 수 있다. [9]

조건을 하나 더 바꾸면 결론도 달라진다

산술 합계 % · 예측 아님



TradeLens 판단

1.8%를 전망치로 제시하지 않는 이유는 재고·수입·소비·투자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단일 항목을 제거한 숫자보다 어떤 항목들이 함께 움직일지를 판단해야 한다.

13 / OUTLOOK & FALSIFICATION

기본 전망은 선택적 확장, 핵심 위험은 회수의 지연이다

확률·목표 지수 없이 조건과 관측 증거로 판단한다.

전개 경로	함께 필요한 조건	경제적 결과
기본: 선택적 확장	민간 최종수요 유지, 재고 정돈, 투자 가동·매출 전환	성장 기반은 유지되나 3.4%의 기계적 반복은 아님
상방: 생산성의 확산	단위비용 개선, 실질소득 회복, 광범위한 유상 사용·판매	공급능력과 수요가 함께 확대돼 재투자 기반 강화
하방: 투자 회수의 지연	소비·출하 약화, 판매 대비 재고 증가, 비용·금융 부담	주문 조정과 준공 지연, 투자 속도 및 성장 둔화

민간 최종수요 4.9%, 고정투자 12.7%, 비농업 기업 생산성 3.6%는 기본 전망을 지지한다. 반면 9월의 실질소득 감소·소비 정체와 산업별 성과 차이는 확장의 폭을 제한하는 신호다. [1] [2] [3] [4]

판단을 강화할 증거

실질소득과 소비가 동반 회복하고, 주문·출하가 재고보다 빨라지며, 가동 후 비용 절감과 반복 매출이 확인되는 경우다.

판단을 뒤집을 증거

민간 최종수요의 하향 수정, 여러 달의 구매력 약화, 재고/판매 불균형과 신규 주문 감소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다.

최종 전망

현재 자료만으로 투자 사이클의 종말을 선언할 근거는 약하다. 그러나 높은 지출 증가율을 성장의 보증으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 확장의 질은 판매·효율·현금 회수의 동반 개선으로 판별한다.

14 / NEXT EVIDENCE

다음 발표에서는 헤드라인보다 연결고리를 본다

2026년 11월 7일 기준. 발표 일정은 미국 현지일이며 변경될 수 있다.

확인할 자료	새 정보가 바꾸는 판단	강화 / 약화 신호
11/10 CPI 11/13 PPI [13]	물가 압력이 가계·기업 비용을 얼마나 제약하는가	가격 압력 완화 / 비용 확산
11/17 산업생산 [8]	투입된 자본이 실제 생산·가동으로 이어지는가	가동·산출 동반 개선 / 설비 유휴
11/24 산업통계 연례 개편 [8]	기존 생산·가동의 수준과 추세가 달라지는가	폭넓은 개선 / 취약성 재평가
11/25 GDP 수정치·기업이익 [12]	성장 구성과 투자 이익의 실현을 함께 평가	민간 수요 유지·이익 개선 / 수요 하향
11/25 10월 소득·소비 [12]	9월의 실질 구매력 약화가 지속되는가	소득·실질소비 회복 / 저축 의존
후속 기업 공시·주문·무역	투자 집행에서 판매·수금까지 진행되는가	확정 수요·회수 개선 / 지연·취소

10월 비농업 고용은 16.5만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4.1%였다. 8~9월 고용은 합계 8.4만명 상향 수정됐다. 고용 기반은 소비를 지지하지만, 시간당 임금 전월비 0.4%가 실질 구매력의 동일한 증가를 뜻하지는 않는다. [5]

다음 판단의 기준

점검의 순서는 최종수요 → 재고·수입 → 생산성·원가 → 기업이익과 현금이다. 새 자료가 나오면 같은 성장률이라도 그 구성과 지속성에 대한 판단을 바꾼다.

11/25는 GDP 2차 추계 및 3분기 기업이익 발표 예정일이다. 기준일 현재 3분기 기업이익 전체를 GDP 속보로 대신 추정하지 않았다. [12]

15 / SOURCE REGISTER · DATA

출처 목록

본문 출처번호와 자료명·원문 열기를 누르면 해당 자료로 연결된다.

01. BEA | 2026년 3분기 GDP 속보치 원문 열기

2026.10.29 · 공식 속보치 · 실질 GDP·민간 최종수요·기술주석·SPR 회계 처리

02. 미국 재무부 | TBAC 경제상황 보고 원문 열기

2026.11.02 · BEA 수치 재제시 · 성장 기여도 표 1, 기업 설비·구조물·지식재산 투자

03. BEA | 2026년 9월 개인소득·소비지출 원문 열기

2026.10.29 · 월간 통계 · 명목·실질 소비, 가처분소득, 저축률, PCE 물가

04. BLS | 2026년 3분기 생산성·비용 잠정치 원문 열기

2026.11.05 · 공식 잠정치 · PDF 1~2·6쪽: 생산성·산출·노동시간·단위노동비용

05. BLS | 2026년 10월 고용상황 원문 열기

2026.11.06 · 사업체·가구 조사 · 고용·실업률·임금·과거월 수정치

06. 연방준비제도 | 10월 FOMC 성명 원문 열기

2026.10.28 · 정책결정 · 목표금리 3.75~4.00%, 투자·생산성·물가에 대한 평가

07. BEA·Census | 2026년 9월 미국 상품·서비스 무역 원문 열기

2026.11.04 · 계절조정·명목 통계 · 수입 자본재·컴퓨터·반도체, 무역수지

자료의 통계 범위와 발표 시점을 유지했다. 표·모형의 계산은 반올림된 공표 수치 또는 별도 명시한 가정에 따른다.

16 / SOURCE REGISTER · METHODS & MONITORING

출처 목록

본문 출처번호와 자료명·원문 열기를 누르면 해당 자료로 연결된다.

08. 연방준비제도 | 9월 산업생산·설비가동률 발표 원문 열기

2026.10.16 항목 · 공식 발표문 · 산업생산·제조업·가동률, 11월 수정 일정

09. BEA | 지출 측면에서 GDP를 측정하는 방법 원문 열기

2025.06.03 · 방법론 · 수입 차감, 투자·재고와 국내 생산의 연결

10. BEA | 2026년 국민경제계정 연례 개편 원문 열기

2026.09 · 방법론·연례 개편 · 재고 평가 및 연쇄달러 비가산성

11. BLS | 생산성 용어·정의 원문 열기

2026.11.07 기준 · 정의 · 자본집약도·노동 구성·총요소생산성과 노동생산성

12. BEA | 경제통계 발표 일정 원문 열기

2026.11.07 기준 · 예정 일정 · 11/25 GDP 수정치·기업이익·10월 소득과 소비

13. BLS | 2026년 주요 통계 발표 일정 원문 열기

2026.11.07 기준 · 예정 일정 · 11/10 CPI·11/13 PPI, 미국 동부시간

14. BEA | 개인저축률 원문 열기

2026.10.29 갱신 · 가처분소득 대비 저축 · 7월 4.5%·8월 4.0%·9월 3.8%

자료의 통계 범위와 발표 시점을 유지했다. 표·모형의 계산은 반올림된 공표 수치 또는 별도 명시한 가정에 따른다.

17 / METHODOLOGY & USE

작성 기준·면책고지·이용 안내

공식 속보치·후속 월간 통계·TradeLens 해석·설명용 가정을 구분한다.

항목	적용 기준
시점·대상	2026.11.07. 미국 2026년 3분기 GDP 속보치(10/29)와 11/6까지의 후속 발표를 구분한다.
기간·단위	GDP·투자·생산성은 별도 표시가 없으면 전기 대비 계절조정 연율. 월간 소비·소득은 전월비. 성장 기여는 %p다.
공식 수치	성장 구성은 미국 재무부가 BEA를 재제시한 소수 첫째 자리 표. 반올림 잔차를 특정 항목에 임의 배분하지 않는다.
설명용 계산	6쪽 재고, 7쪽 수입, 10쪽 NPV, 13쪽 성장 민감도는 명시한 가정·산식에 따른다. 실제 GDP·기업 실적 전망이 아니다.
판단 범위	기본·상방·하방은 조건부 분석이다. 개별 기업의 수주·마진·AI 기여도와 미래 성장률을 역추정하지 않는다.

면책고지

본 보고서는 시장·산업 및 기업의 경제적 구조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매수·매도 의견·시점, 적정가격·목표가격 및 이용자별 투자자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록 정보와 분석은 작성일 기준이며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망·가정 및 예시 계산에는 불확실성이 있으며 원금이나 투자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판단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계 법령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트레이드렌즈는 본 보고서 이용에 따른 투자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 및 이용 제한

본 보고서의 서술·도표·디자인·편집 및 구성 중 트레이드렌즈가 권리를 보유한 부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개인 열람·보관 외에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편집·번역·재가공하거나 복제·전송·재게시·재배포·판매할 수 없습니다. 유료·무료 제공 및 파일·화면 캡처 등 형태를 불문하며 로고·출처·권리표시를 제거하거나 제3자 명의로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이용과 제3자 자료의 개별 이용허락조건은 그에 따릅니다. 공유는 트레이드렌즈 공식 게시페이지의 원문 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